

與 공수처 정면돌파...“野 태도 변화 없으면 개정할 수밖에”

이낙연 “더는 국민 지치게 못해...법 개정 하라”

김태년 “野, 오늘이 ‘합의 출범’ 마지막 기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담판을 앞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후 회동을 거론하며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헌법소원과 빈손으로

끝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을 거론한 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시 바란다”며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주시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대한변협, 법원 행정처와 같은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후보까지도 두 물자만 반대를 했다”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열 번을 재추천한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요구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 의정집무실에서 만나 공수처 출범을 놓고 담판에 나설 예정이나, 별무소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활동을 종료한 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 하에 174석 여당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재추천부터 검증까지

시일 소요를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독주한다고 욕을 먹는 것이 낫지 174석을 갖고도 무능한 여당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것과(김용민안),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것(백혜련안)이 골자다. 해당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심사 후 당일 소위원회 의결까지 한 뒤 오는 30일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가격리중인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시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들까지도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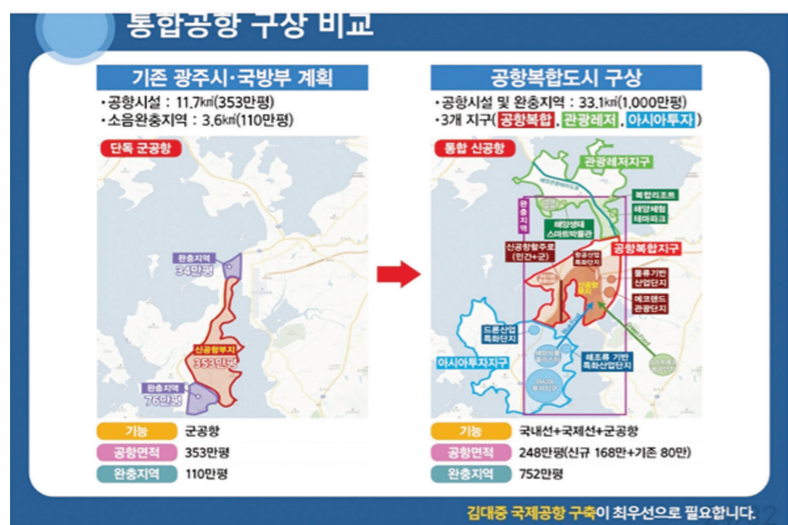
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지난 7월 18개 상임위원장직 삭감과 임대차3법 단독 처리 이래 ‘여대야소’ 21대 국회의 첫 예산안 처리도 여당의 독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강기정 “무안 복합공항도시, ‘김대중’ 민군통합신공항 빅딜” 제안

YS 서거 5주기...與 “YS 정신으로 입법과제 완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통합신공항 구상도.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안·광주 민군통합 신공항과 1000만평 규모의 무안복합공항도시의 빅딜을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23일 디큐브 정책연

구소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이 공동주최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통합 공항을 시작으로’란 특별기획 온라인 포럼 기조발표에서 “서남권 광역경제권 구상의 시작은 ‘무안·광주 통합공항 건설’로 부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과 광주공항 국내선, 군공항을 한곳으로 통합해 국제관문을 확보해야하며, 규모는 1000만평의 공항도시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공항과 공항도시는 다가올 대선에서 호남 상생공약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공항의 방향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한곳으로 동시 이전 합의 ▲국내선 민항과 국제선 민항을 한곳으로 통합 합의 ▲군공항 규모는 현 광주 군 공항 수준 유지 ▲완충지역은 국방부 계획보다 7배가 넓은 규모로 조성해 소음피해 최소화 ▲1000만평 공항도시 공동개발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강 전 수석은 “빅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통합공항 248만평과 완충지역 752만평 정도의 공항도시 부지 약 1000만평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한다”면서 “전남 무안의 경우

군공항을 포함한 민간공항 통합이전에 합의하면 통합공항을 포함해 1000만평의 공항도시 건설에 대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안은 전남도가 추진했던 J프로젝트를 부활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완충지역 부지 약 750만평을 확보하고 전남은 공항 약 250만평 및 완충지역 1000만평에 공항도시 1차 개발을 시작하는 것”을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광주는 민간공항을 이전시키고 750만평 정도의 완충지역을 무안에 확보해 주면서 군공항이 이전된 광주공항 종전부지에 미래형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항도시 개발의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기존 계획대비 군공항이 0.7배로 줄어들지만, 해안선과는 더 가까워져 서남권 전략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김회재 의원, 내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개최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고교승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부회장의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방향과 기대효과’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한다. 또 경기균형발전위원회 박진홍 과장과 국가철도공단 김윤양 처장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의 당위성과 관련, “낙후된 지역들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받지

못해, 경제성이 더욱 떨어지는 빈익빈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고 “인구와 산업 절반이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라선을 고속철로 신설하게 되면 익산~여수 구간이 기존 98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서울~여수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고 “전라선 고속철도 2019년 65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전라선 승객의 이용 편의 증진과 함께 여수·순천을 거점으로 하는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벨트의 기틀이 다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